

## 현행 노조법, 전면 재설계 필요하다

### “ILO 기본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노조법 개정하는 시민운동 만들자”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만들어 입법부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가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노조 4층 회의실에서 ‘노조법에 발목 잡힌 ILO 기본협약 이행, 노사관계법 전면 재설계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2021년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의와 온전한 이행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ILO 기본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려면 ▲특수형태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 삭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 철폐 ▲진짜 사장 대상 단체교섭권 보장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쟁의행위 민형사책임 제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등 재설계에 준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ILO 기본협약의 온전



한 이행을 위한 과제로 △국내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라는 광범위한 사회 여론 형성 △입법부 역할 강제 △국내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감한 투쟁 기획 △위력 있는 사회운동을 만들기 위한 운동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상민 실장은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배경에는 노동운동의 노력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정치외교 상황, 한-EU FTA 체결에 따른 노동 관련 조항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고 설명했다.

김상민 실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했을 때 정치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며 “비준 이전에도 한국은 ILO 회원

국으로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각종 권고를 받았으나, 종종 무시해왔다. 협약 비준으로 한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더 강한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다” 고 강조했다.

한국이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협약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과 법 해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김상민 실장은 “현행 노조법은 ILO 기본협약에 한참 미달한다” 면서 금속노조 사업장에 닿아있는 쟁점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강제단일화, 방위산업 파업권 제약을 꼽았다.

김상민 실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노동운동은 비준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함을 드러냈으나, 노조법23조 개정을 제외한 힘 있는 대중운동을 만들지 못했다” 며 “국제노동기준 준수가 노동권 신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드는 데 필수라는 공감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벤츠 팔아 버는 족족 모기업 고배당...노동자 임금은 제자리

## 한성자동차 조합원들, 7일 총파업 “고용안정·임금인상 요구”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가 7일 오후 서울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 앞에서 ‘한성자동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판매·수리하는 한성자동차 노동자 7백여 명이 전국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비우고 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라대관 노조 수입자동차지회장은 한성자동차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라대관 지회장은 “들쭉날쭉한 임금 받으며 주말도 없이 고객 응대와 감정노동을 한다. 유해 가스 와 온갖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무더운 작업장에서 차를 고친다”라며 “안타깝게도 사측은 애써온 노동자들에게 올해 임금동결안을 던졌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는 ‘직접 판매’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한성자동차 같은 딜러사, 즉 판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벤츠 차량을 팔겠다는 것.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최대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는 현재 노동조합 요구에도 직판매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이 MBK 직접 판매제를 구실삼아 대규모 구조조정을 저지르지 않을까’ 한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우려한다.

모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성자동차 모기업인 레이싱그룹을 향해 “한국에서 벤츠를 팔아 버는 족족 자기네 주머니로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성과급을 삭감했다”라며 “나쁜 외투 자본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레이싱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회사다. 한국 한성자동차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MBK 지분도 49%나 보유하고 있다.

노조 수입자동차지회는 한성자동차가 레이싱그룹에 2021년 1천2백억 원, 2022년 1천억 원 등 과도한 금액을 배당해 왔다고 지적한다. 한성자동차 영업이익이 2021년 521억, 2022년 855억이라는 점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성자동차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MBK로부터 벤츠 전기차종을 대량 구매했다. 재고가 쌓였고, 이에 따라 한성자동차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레이싱그룹이 한성자동차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MBK에 돈을 벌어주고 있다며 “레이싱그룹이 MBK 대주주라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성자동차를 통하든 MBK에서 벌어들인 결국 자기네 이익만 늘어나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는 레이싱그룹 자회사 소유 부동산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마련한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고배당, 자회사 몰아주기, 재고 밀어내기 등으로 레이싱그룹은 한성자동차를 완전히 뺏아먹고 있다”라며 “노동의 대가는 해외로 흘러 나가고 돈 벌어오는 노동자들은 불안에 떠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을 노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 교섭을 주문했다. 김태을 지부장은 “사측 대표가 교섭장에 나와 입 다물고 눈 감은 채 그냥 앉아 있다”라며 “레이싱그룹,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측 모두에 전한다. 노동조합 무시하고 노동자들 등치는 지금 행태를 고수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한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수입자동차 전시장에 모여 있는 강남 도산대로를 행진하고, 한성자동차 청담전시장에 조합원들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뒤 사측에 항의 서한을 전했다.